

첨가한 tissue culture medium-199에 공시란을 48시간 배양한 후 체외성숙능을 판정하였다. 그 결과 동결구의 성숙율은 64% (9/14)로서 대조구 (78%=7/9)와의 유의적 차가 인정되지 않았다. 실험2에서는 체외성숙 된 실험구의 난자를 Giemsa 염색 및 cytovision을 이용하여 karyotyping 한 후 염색체 정상성을 판정하였다. 16개의 성숙란 중 11개의 난자 (69%)가 분석되었으며 동결 및 대조구에서 각각 6개 및 5개가 공여되었다. 대조군에서는 aneuploidy 와 polyploidy의 발생빈도가 17%로 관찰되어졌으나, 동결용해한 난자에서는 염색체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.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리화동결법은 인간난자의 성숙율 저해 및 염색체이상을 야기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임이 입증되어졌다.

P-49 1998년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체외수정 시술결과

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

윤태기 · 한세열 · 최동희 · 이숙환 · 곽인평 · 김현주 · 박원식
윤내영 · 정형민 · 엄기봉 · 정미경 · 고정재 · 차광렬

본 연구는 1998년도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행하였던 1738례의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. 시술을 실시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33.6 ± 4.6 이었으며, 불임의 원인은 난관요인 32.5% (565 cycle), 남성요인 22.0% (382 cycle), 기타 여성요인 7.8% (136 cycle), 복합요인 23.4% (406 cycle), 원인불명 11.5% (200 cycle) 및 기타요인 2.8% (49 cycle)이었다. 총 1738 retrieval cycle중 배아이식이 가능하였던 경우는 1672 cycle이었으며 이들 환자에게 평균 4.2 ± 1.5 개의 수정란을 이식하여 670 cycle에서 임신이 되어 40.1%의 clinical pregnancy rate를 나타내었으며, 총 1047개가 착상되어 15.0%의 착상률을 나타내었다. ICSI를 시행한 경우는 749 cycle로서 708 cycle에서 배아이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4.0 ± 1.6 개의 난자를 이식하여 307 cycle에서 임신이 되어 43.4%의 clinical pregnancy rate를 나타내었고 총 496개의 배아가 착상이 되어 17.5%의 착상률을 나타내었다. 배아이식 방법에 따라 분석하면 자궁내 배아이식 (IVF-ET)의 경우 34.2% (333/975), 접합자 난관내 이식 (ZIFT)의 경우 34.3% (48/140), ZIFT와 IVF-ET를 병행한 경우 51.9% (289/557)의 clinical pregnancy rate를 나타내었으며, 각각의 경우의 착상률은 13.4% (525/3929), 17.5% (63/360)와 17.0% (459/2705)로 나타났다. 한편, 환자의 연령별 임신율은 35세 미만의 경우 46.7%, 35세~39세의 경우 35.9% 및 39세 이상의 경우 13.7%로서 39세 이상의 경우 현저히 낮은 임신율을 나타내었다. 670명의 임신환자중 단태임신은 63.1%였으며 쌍태임신의 경우 21.9% 그리고 3태임신 이상의 경우는 14.9%의 비율로 나타났다.